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예레미야애가 · 로마서 · 에스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충현의 만나

2002

가정예배 · 예레미야애가 · 로마서 · 에스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4월의 '기적'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기적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 숨겨진 생명의 신비
꽃 속에 숨겨진 향기로운 내음
해마다 변함없는 이러한 일들은
하늘 아버지의 손길!
그분은 분명히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심어 놓으셨는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있습니다.
거듭남의 신비
믿음으로 느끼는 생명의 향기
새롭게 다가오는 두 번째의 창조는
먼 옛날, 갈보리 언덕의 아픔!
그분은 분명히 최고의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속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랑 심어 놓으셨는지!

봄이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위가 몰려오겠지요!
밭을 경작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씨앗을 뿌리듯이 소중하게 말씀을
읽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아름다운 믿음의 싹
이 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2002년 4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로마서 서론

로마서는 로마에 정착하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원래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 전통을 이어오다가, 주후 1세기의 40년대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로마에 그리스도교가 발을 붙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 잇달아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주후 49년 글라디우스 황제 치하 때에 유대인들은 로마 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얼마 후 네로 황제가 등극할 때에(54년) 이 추방령이 해제되자 추방당한 자들이 곧 대량으로 귀환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비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50년대 중반부터는 로마 시의 그리스도 교회의 인적 구성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집필 동기, 장소 및 시점에 관해서는 15:22-29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곤궁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끝마칠 참이었다. 그는 마게도나와 아가야(고린도)에서 거둔 모금의 열매를 몸소 예루살렘으로 가져다주고 이어서 로마로 가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는 동부 지역에서는 그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로마 방문을 알리는 것이 이 편지 집필의 외적 동기였다. 집필 시점은 아마 주후 56년 초이며 집필 장소는 고린도였다(행 20:1-6 참조).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장차 협력관계를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가 선포할 내용의 기본적인 것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갈라디아에서 실시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 선교'를 둘러싼 논쟁의 신학적 결실과, 고린도에서 벌어진 갈등의 신학적 결실이 <로마서>의 진술 속에 유입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 그의 전도 활동을 끝마친 후에 매기는 하나의 총괄적인 중간 대차대조표가 되는 셈이다(15:15-24 참조).

바울은 1:16-17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편지의 주제를 말한다. 1:18-3:20은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부정적 배경을 서술한다. 그러나 3:21-4:25에서 적극적인 내용을 전개한다. 예수의 속죄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표명하셨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

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다. 5:1-11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진상을 서술한다. 5:12-21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함으로써 온 인류에 미치는 은혜의 의미를 명시하며 6장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새로워진 삶의 기초가 놓여지며 어떻게 그 삶이 다시는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지를 제시한다. 7장은 회고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죄와 율법 사이에서 일으키는 상태를 서술한다. 8장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규정된 삶을 묘사한다.

9-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12장 부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미치는 결과들을 열거하는데 그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12:3-8),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대면하여 일상적 삶에서 취할 처신(12:9-21), 국가 제도의 존중(13:1-7), 사랑 계명의 의미(13:8-14), 그리스도교적 삶의 양태에 대한 상이한 견해 때문에 야기된 교회 내적인 긴장 관계의 극복(14:1-15:13)' 등으로 나누어 지며 15:14-33에는 바울의 여행 계획에 대한 정보가 16장에는 인사말이 길게 이어진다.

〈로마서〉는 바울의 칭의론,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인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가르침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명석한 진술이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로마서〉는 언제나 거듭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루터가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써 놓은 말은 여전히 타당하다. "이 서신은 신약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울 정도로 알아야 할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써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만큼 가치가 있다."

내용분해

1. 편지 서두와 편지 주제(1:1-17)
2.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1:18-4:25)
3. 죄와 율법의 극복과 성령 안에서의 삶(5-8장)
4.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9-11장)
5.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12:1-15:13)
6. 편지 결미와 인사말(15:14-16:27)

본문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및 모든 집이 불살라졌으며, 성벽이 헐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포로 사건은 유다 공동체의 패망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벌이 그 만큼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벌하실 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망치하십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통해 회복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암담한 현실을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파괴한 세력은 한 때의 강성함으로 끝나지만 파괴당한 성전은 백 년이 안 되어 재건되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 대해 무섭게 벌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며 어떤 순간에서도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주의 권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슬프다’, 이것이 애가의 첫 장 첫 절의 첫 단어입니다. 이 한 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멀리 끌려갑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들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로 모든 것이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있었고 경고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십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오히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자신과 자신의 주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지자들처럼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신앙은 이기적인 것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살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소서. ② ‘위임복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영적인 슬픔은 더 크고 오래갑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더 악하고 영적인 아픔이 더 깊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면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레미야는 1장에 이어 계속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의 군대로 인한 것 같지만 저자는 이 심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제사 의식의 타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저자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볼 때 자신의 상황에만 한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상황뿐 아니라 민족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까지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또한 나의 관심이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은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다면 내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쓸데도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재난이 전 공동체적인 것임에도 저자는 자신의 상황도 그와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현실이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여호와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야말로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원한대로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꺾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그 상황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 분께서 지금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원망치 말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회상하고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맺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축복스러운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상실했을 때 가장 비참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의 죄가 얼마나 공동체를 급속하게 오염시키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할 때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한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나의 영적인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은 나의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고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도록 합시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자신의 상태와 현재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모르거나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세상을 사랑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인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픈 상처를 낱알이 예를 들어가면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도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주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구원의 원리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7절에서 바울은 사도된 자신을 소개하면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8-17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밝히고 있고, 18-32절에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직접 목격한 수많은 이방인들의 범죄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2절).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이 복음을 받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진 자(14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16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죄악된 인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때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천년 전 바울이 로마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바로 그 복음의 확신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충현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 주심으로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 들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롬1:20). 본 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따라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16절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목(罪目)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7-29절에서는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낱낱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비판은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믿음과 순종을 도외시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율법 준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인 유대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비(非)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형식과 자만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말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현대 사회는 최첨단의 과학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도덕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발전시키는 과학은 인간 그 자체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9,10절).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20,21절)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킬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윤리 도덕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더욱 더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깊은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처럼, 인간의 깊은 본성에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원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분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자랑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죄인을 의롭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십자가만 붙잡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주장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며 최고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임을 역설하면서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은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백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어떤 행동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1절).

오늘날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현실이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뒤를 이어 복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통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 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정말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아십니까?

본문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만드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죽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7절). 그러나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부모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1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과 글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주변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이단의 무리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의 죄는 물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으므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왜곡된 주장에 대해 그리스도와 연합의 원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1절).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죄의 지배, 즉 죄와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14절). 이것은 곧 사람들이 완전히 죽은 사람만을 땅에 묻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이었던 관계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4절).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끊어진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할 수 있단 말입니까?(1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주님 혼자만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연합의 원리에 의해 우리 모두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도 십자가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현실의 문제와 부딪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회피하기 어려운 세상의 죄 문제로 인한 갈등,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갈등, 이러한 갈등들은 과연 극복될 수 없는 것일까요?

본문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을 동안 이러한 갈등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1절).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7-13절).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됨으로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존재입니다(갈3:24).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식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4절)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가히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의식하는 것 만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수는 없는데 신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결국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이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뿐입니다(2-6절).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 이러한 갈등은 극복됩니다(25절).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기쁜 소식 중의 기쁜 소식, 복음 중의 복음이 8장에서 보석처럼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1-2절).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1-11절). 그리고 그 자유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12-16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만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고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꾸준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17-25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세력이나 힘으로도 파괴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러한 사랑의 끈을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26-39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글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크고 높으신 사랑,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임하신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세워졌습니다. 그 구원계획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주신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9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곧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었지만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6-8절).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습니다(9-13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 듯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14-24절). 유대인의 크나큰 잘못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해서 살아보겠다는 인간중심의 구원관입니다. 유대인은 구원의 약속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것을 곧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25-33).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거나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지 않은가? 내가 길을 잃고 죄 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9장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쯤 가져봤을 것입니다. 10장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고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선물을 거부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은 배척했습니다(1-15절). 이러한 배척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주셨건만 어떤 사람은 참으로 고집스럽게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맛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너무나 자명합니다(16-20절).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지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21절).

1절에 '형제들아' 대신에 자기이름을 넣어 읽어봅시다. "OO야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너'를 위함이니 곧 '너'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주님은 나를 위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받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 민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했지만 구원의 길은 유대인에게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미래의 소망을 본 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실현시키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남은 자' 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은 자' 의 실례로 먼저 자기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 천명을 예로 들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1-10절).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지만(11-24절),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25-32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립니다(33-36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손을 벌리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그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외 주님 내 맘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1-8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제시하고, 9-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나타나며, 12-15장은 성도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 땅에 실천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의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1-2절)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서로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도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3-8절).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좋은 일도 만나고 싫은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9-21절).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현재의 삶의 길이 있고 영생하는 미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삶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8-10절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개인적인 의무와 국가적인 관계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 11-14절은 그리스도인의 제림에 대한 준비를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도덕 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는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법들을 어겨서 처벌받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1-14절은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를 묘사합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술에 취하여 남몰래 나쁜 짓을 하고 방종을 저지르며 싸우고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모든 일들을 내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비록 아직도 밤이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낮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소서, ② 각 나라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독단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연합하여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12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도울 것을 말하고 있으며 13-23절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자기희생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합법적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합법적인 일이 내 형제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가장 고귀한 사랑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호이해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락”을 얻기 위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동기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좇아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좇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삽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과 사역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본문에는 특히 복음에 대한 바울의 순수한 열정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3절은 14장에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상호 이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33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16절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으며, 17-21절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임을 말하고 있고 22-29절은 서바나까지의 여행계획을 30-33절은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만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향한 험한 고난의 길을 가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로마교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그 길은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한 지체인 증거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삶을 나누었던 동역자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내에서의 분쟁을 일으키고 이단사설을 전파하는 악한 무리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형제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안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유대인, 이방인, 자유자, 종 등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성도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뫼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 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안에서 동역자 우루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그리스도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베키... 이상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동참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되는 자리에까지 나가길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나의 일생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전 593년 에스겔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때 유다는 거의 힘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우상숭배와 함께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신뢰를 상실한 유다 민족을 향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에스겔이 처한 환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4-28절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네 생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날개와 봉사의 손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에 순종하여 서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번개 기둥같은 기력으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방관하시거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실상은 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고한 이상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상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고,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대 백성들에게로 보냄을 받는데, 그들은 패역하고 죄를 범하기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본 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긍휼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은 유대 백성에게 보냄 받은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8-10절은 두리마리 책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에스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패역한 시대, 타락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라고 하나님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에스겔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거절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1-3장에 걸친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된 일련기사의 끝부분으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선포한 말씀과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절 말씀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입니다.

신앙이란 말씀의 단순한 지적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먹는다”는 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절에서는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먹는 자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먹는 것”을 먹어야 “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신자란 내 자신이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배가 채워져 있다면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먹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총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에스겔의 예언적 행동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우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상징적 행동을 4-8절은 포로기간에 대한 상징적 행동을 9-17절은 예루살렘에 닥칠 기근에 대한 상징적 행동을 기록합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한 무렵의 예루살렘 상황은 결코 나쁘지 않았습
니다. 오히려 대단히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가옥들로
즐비하고 성과 성벽도 든든하였고 철로 된 성무 등을 갖추고 있어 이방이
공격해 올지라도 안심이라고 자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
워하거나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인간의 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
에 그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므로 ‘박석’이라는 연한 점토판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썼습니다. 이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림으로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번
영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빈곤한 성읍일지라도 번영할
것이며, 아무리 부유한 성읍일지라도 멸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4장과 연결된 내용으로 1-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됨에 대한 상징적 행동을 5-17절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1절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후에 일어날 것을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들은 예언은 현실로써는 도저히 추측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징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본 우리는 그 심판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는 현재 우리들의 지체로 생각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심판은 너무나도 엄격하여 세상 어떤 존재도 감히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기도 제목 / 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유대 백성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 11-14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며 8-10절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의 일부를 남겨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3절 말씀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에 의해 파괴당한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대하게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곳을 칼로써 멸하시고 황무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살육 당한 자의 시체를 두며 그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으신다 하십니다. 이것은 죽어도 장사 지내줄 자가 없어 묻히지 못한 시체가 뼈만 남게 된다는 가장 처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제단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제단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영원히 존속할 듯한 것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을 감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6장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1-13절은 하나님의 심판 시기가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14-22절은 심판의 확실성과 저들의 교만이 격이게 된 것을 예언합니다. 23-27절은 유다 백성의 땅, 성전, 지도자들이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2절 말씀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남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사방”이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끝났도다”라는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중요합니다. 이미 도래한 듯이 말해서 그것이 반드시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관이라든가 신앙 목적도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약속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미래의 종말임과 동시에 현재 이미 성취된 종말이 기도 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를 우리들은 종말의 때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 제목 / ① 심판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앞장에 언급된 예루살렘과 남 유다 왕국의 멸망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멸망의 원인이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5-18절은 성전에서 숭배되는 우상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5절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투기의 우상이 있더라”입니다.

에스겔은 자주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손길 같은 것에 의해 들려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투기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세운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출20: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 질투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우상에 대하여 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시기의 하나님이란 바깥 말하자면 열심이신 하나님,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어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만을 섬기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새로운 날

◆ 찬송 / 248장(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본문 / 창 32:3~32

영문 찬송곡명 또는 찬송을 발제한 찬송집 이름 (WESLEY) 찬송의 운율 11.10.11.10.
 작시자 T. Hastings, 1830 작시연도 조금 빠르게 ♩ = 100 작곡자 L. Mason, 1833 작곡연도

찬송의 형식(바르기)

힘 있고 장엄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힘있게 지속합니다

1. 시 온 의 영 광 이 빛 나 는 아 침
 2. 시 온 의 영 광 이 빛 나 는 아 침
 3. 보 아 라 광 야 에 화 초 가 피 고
 4. 땅 들 아 바 다 아 많 은 섬 들 아

마지막 짧은 형식을 좀 느리게 하여서 더욱 장중한 느낌으로 찬송하여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세게

슬 풀 과 애 통 이 기 뵤 이 되 니
 오 래 전 선 지 자 꿈 꾸 던 복 을
 이 산 과 저 산 이 마 주 처 물 러
 싸 움 과 죄 악 의 참 흑 한 땅 에

이 찬송의 절정부분입니다. (찬음 한음 매우 크고 또렷하게 찬송합니다)

시 온 의 영 광 이 비 처 오 네
 만 민 이 다 갈 이 누 리 겠 네
 주 예 수 은 총 을 찬 송 하 네
 찬 송 이 하 늘 에 사 무 치 네 아 멘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glad morning

영문 찬송 가사 첫줄

하나님 나라 찬송의 내용에 따른 제목분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48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19C 미국 교회음악가의 대표자인 토마스 헤이스팅스(Thomas Hastings, 1784~1872)가 1830년에 작사하였고, 동시대의 미국의 저명한 교회음악가이자 음악교육자인 로웰 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이 1833년에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요 1:4-5,9)께서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1절).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죄에 매였던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2절).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신 예수님! 광야와 같이 매말랐던 우리를 성령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며 온 인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송하게 됩니다(3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최후의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때에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4절).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닐까요? 이는 압록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했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과 같은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야곱의 생애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를 돌이켜 볼 때, 그는 안팎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들, 가족, 형제, 장인, 그리고 처의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문제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가 결코 실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야곱, 그 스스로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야곱에게 임한 새로운 삶을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으로 변화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창세기32:3~3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① 3절~6절 - '에서'와의 화해를 위한 야곱의 방법과 결과

② 7절~12절 - '에서'의 반응에 대한 야곱의 반응

③ 13절~20절 - '에서' 와의 화해를 위한 야곱의 두 번째 방법

④ 21절~32절 - 홀로된 야곱에게 벌어진 일

2. 다음주일 설교('새로운 날')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해보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왜 옳지 않습니까?(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해보십시오)

② 야곱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시련에 빠질 때면(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기도했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놓고, 그가 기도했던 때를 모두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말해보십시오.

③ 아랍은 '참된 평강을 맛본 자'였습니다. 그는 원수였던 형제와 화목
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랍이 누리게 된 참된 평강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리고 아랍에게 임한 화목의 원리가 우리
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④ 야곱은 '은혜의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야곱에게 임한 '은혜의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⑤ 양곡은 '출발하는 나라' 언어수다. 그는 다음 소리는 자에서

⑤ 아픔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속이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가면서(결론)

1.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소감을 말해보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2.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실 때,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살펴보시고, 또 한 번은 주님의 관점으로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시실 것 같습니까?

제목 :

본문 :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33-11 主和 福音 歌

제 2 과

아주 다른 두 사람

◆ 찬송 / 434장(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본문 / 룿 1:1~22

F. J. Crosby, 1875

보통으로 ♩ = 88

Double
(찬송의 4·5단이 반복으로
아래진 것을 나타냄)

ALL THE WAY: 8.7.8.7 ①

R. Lowry, 1875

못갖춘 마디이므로 부드럽고 여리게 시작합니다.

점음표(구절)의 연주: 1은 길고-우아하게, 2은 짧고 탄력있게

1. 나 의 갈 길 다 가 도 록 예 수 인 도 하 시 니
2. 나 의 갈 길 다 가 도 록 예 수 인 도 하 시 니
3. 나 의 갈 길 다 가 도 록 예 수 인 도 하 시 니

내 주 안 에 있 는 긍휼 어찌 의심 하 리 요
어려운 일 당 한 때 도 족하 은혜 주 시 네
그 의 사 랑 어찌 큰 지 말로 할 수 없 도 다

일 음 으 로 사 는 자 는 하 늘 위 로 발 게 네
나 는 심 히 고 단 하 고 영 혼 매 우 갈 하 나
성 령 감 화 받 은 영 혼 하 늘 나 라 갈 때 에

여기는 점음표가 아닌 것에 주의! (4·5단에서는 점음표 대신 8분음표가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듬에 맞추어 가사를 분명하게 노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 든 지 만 사 형 똥 하 리 라
나의 앞 에 반 석 에 서 샘 물 나 게 하 시 네
영 영 부 를 나의 찬 송 예 수 인 도 하 셧 네

무슨 일을 만나 든 지 만 사 형 똥 하 리 라
나의 앞 에 반 석 에 서 샘 물 나 게 하 시 네
영 영 부 를 나의 찬 송 예 수 인 도 하 셧 네 아 멘

4제단의 가사를 한번 더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와 보호
이 점을 생각하셔서 더욱 신실한 고백의 심정으로 이 마지막 단락을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4장)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미국의 여류 찬송작가인 화니 제인 크로스비(Fanny Jane Crosby, 1820~1915)가 1875년 기도응답의 체험을 바탕으로 영감을 얻어 작시하였고, 이를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며 찬송 작곡가인 로버트 로우리(Robert Lowry, 1826~1899)에게 의뢰하여 같은 해에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세상에서처럼 학식과 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그런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휟입니다. 마 1:1-17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기생 라합, 암몬족속의 여인 룓,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러합니다. 이들은 모두 높거나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로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노라고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맘으로 다 함께 이 찬송을 불러 봅시다.

들어가면서(서론)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피부 색이나 삶의 방식, 또는 지역과 종교, 그리고 성별 등 매우 다양한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과 의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아들을 아는 자와 아들을 모르는 자 등으로 말이지요. 이것은 세상의 복잡한 사고 방식과는 다른, 믿음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정에서 벌어졌던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과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각자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게 될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각자는 루이나 오르바, 둘 중의 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공부를 통해서 모두가 루처럼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루기 1:1~2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① 1절~5절 - 모압 땅에서 벌어진 한 가정의 비극

② 6절~10절 - 나오미의 제안과 두 며느리의 반응

③ 11절~14절 - 나오미의 두 번째 제안과 두 며느리의 반응

④ 15절~18절 - 나오미의 세 번째 제안과 룯의 반응

⑤ 19절~22절 - 나오미와 룯의 새로운 삶

2. 다음주일 설교(‘아주 다른 두 사람’)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시어머니 나오미의 두 번째 제안에 대하여 오르바가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되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에게서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오르바에 비하여 룯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③ 룯이 늙고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르는데 있어서 치려야 할 대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먹여 살려야 하는 일 등)?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④ 우리는 오르바와 룯을 통해서 두 가지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 무엇이며,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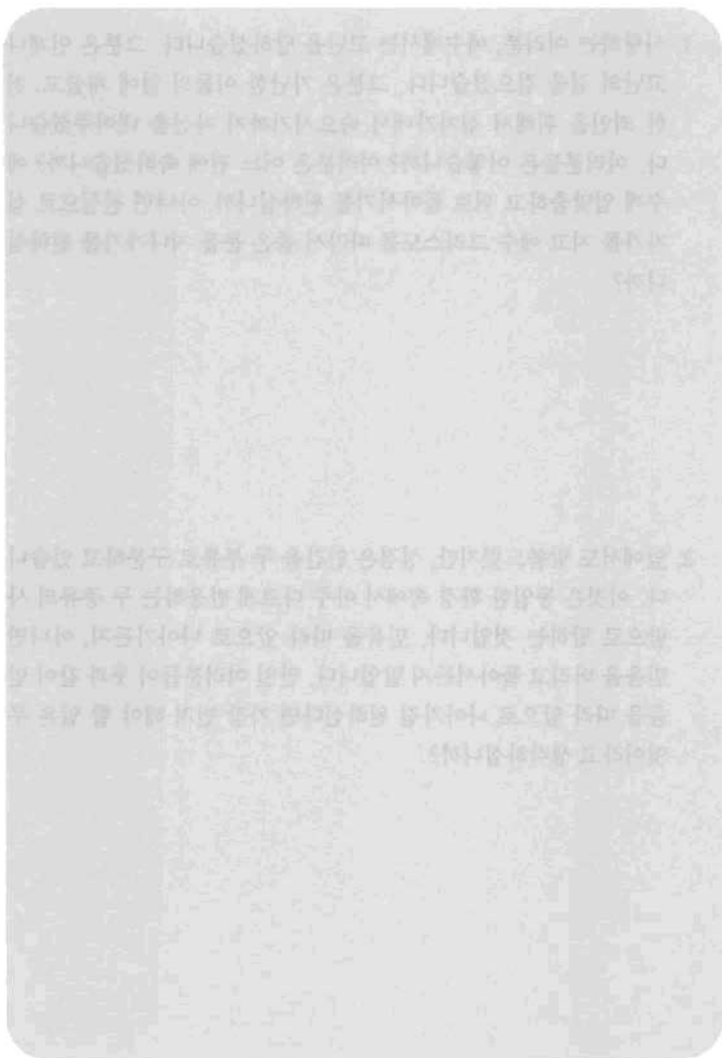
⑤ 세상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두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각각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가면서(결론)

1.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의 옆에 계셨고, 천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예수께 입맞춤하고 뒤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2.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아주 다르게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든지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룯과 같이 믿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목:

본문:



仁 慈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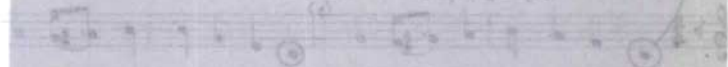
주두 심하상 돌라

단 - 2/4 요 1/4 분보 • (시 134:1-3) (시 134:1-3) (시 134:1-3)

우리는 주를 찬양하리니
우리는 주를 찬양하리니
우리는 주를 찬양하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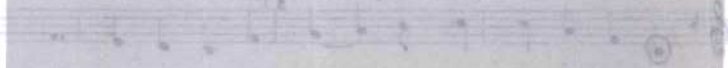
2/4 = 1. 2. 3. 4.

시 134:1-3
시 134:1-3
시 134: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주.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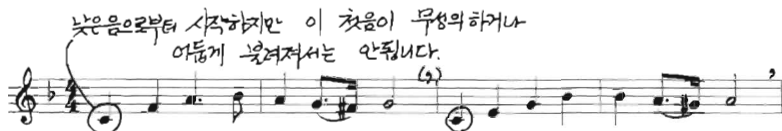
제 3 과

버림 당하신 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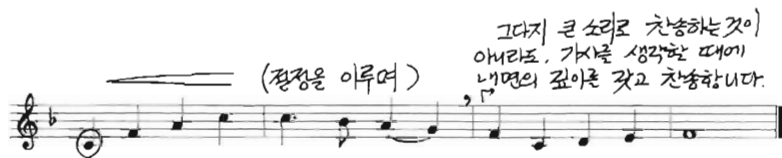
◆ 찬송 / 504장(예수 영광 버리사) ◆ 본문 / 요 1:9~13

F. R. Havergal (1836~1879) 주시연대가 복음영광 경우
작자의 생애 가운을 대신 기양함
보통으로 ♩ = 92

PARACLETE: 7.7.7.5.
U. C. Burmar, 1911h C.
19C경에
작곡되었음을 표시



1.예수영광버리사	사람되신것보고
2.예수친히십자가	지고가신것보고
3.예수너를위하여	죽으심을본바아
4.예수부활하셔	승리하신것보고
5.예수승천하셔	영광받으심보고
6.예수다시오셔	상을주실줄믿고



너도고난당하니	길이참아라
너도주님의십자가	지고따라라
너도날을위하여	몸을바쳐라
너도승리할줄을	믿고싸워라
너도영광받을줄	믿고섬겨라
너도상을얻도록	참고참아라

주를 본받음

‘예수 영광 버리사’ (504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영국의 복음주의 여류 찬송가 작가인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갈 (Frances Ridley Havergal, 1836~1879)이 1876년에 요 13:15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작시했으며 작곡자인 버마(U. C. Burmar)는 19C의 인물로 만 추정할 뿐 그의 생애에 관하여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온 천하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1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몸소 친히 대속의 재물이 되시어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2절).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죄를 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3절).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신 지 사흘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하셨습니다(4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5절).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재림하시어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며 또한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6절). 이렇듯 몸소 친히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고난가운데 인내하며(1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며(2절),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며(3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며(4절),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5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늘의 상급을 얻도록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시면서(6절) 경건한 맘으로 이 찬송을 불러 봅시다.

들어가면서(서론)

예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구주이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싫어 버린 바 되며, 채찍에 맞고, 상하며,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징벌을 받고, 그리고 매맞을 것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언급하였습니다(사 53:3~9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사야의 예언처럼 모두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과 멸시를 받았는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만은 거절당하지 않도록, 아니 여러분들이 그분을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도록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요한복음 1:9~13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① 9절 - '참 빛'

② 10절 - '그'(그가, 그로, 그를)

③ 11절 - '자기'(자기 땅, 자기 백성)

④ 12절 - '영접'

⑤ 13절 - 탄생(나지 아니하고, 난 자들)

2. 다음주일 설교('버림 당하신 구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버림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십시오.

-
- ②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버림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십시오.

- ③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 ④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비록 버림을 받으셨을지라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세상을 향하여 표현하신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⑤ 죄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향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나가면서(결론)

1.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메시아를 버리게 될 것이며, 메시아를 버리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에서 어떻게 버림 당하고 계실까요?

2.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버린다면 어떤 경고를 받게 될까요? 또한 예수의 제자로서 스승을 버린다면 어떤 경고를 받게 될까요?

제목:

본문:

제 4 과

잃어버린 자

◆ 찬송 / 221장(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 본문 / 엡 2:11~18

Refrain : 구원이 있네 의미
CITY OF CANAAN: 14.10.14.10 (Ref)
P. P. Bilhom (1865~1936)

1. D. Ogdon (1872~1964)

* 이 찬송은 라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가사로 생각하시면서 또렷하게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으로 ♩ = 84

강박

♩ 과 ♩의 라들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찬송합니다.
이 곡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점음표가 자주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앞이지만 가사로 또렷하게 부릅니다.

1. 나 가난복지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짐을벗어버렸 네
2. 그 불과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길이형통하졌 네
3. 내 주린영혼만나로써 먹여 주시니 그 양식내게생명되겠 네

8분음표의 시작을 정확하게.

강박

죄 중에다시방황할일 전혀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살겠 네
그 요단강을내가지금 건넌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살겠 네
이 후로생명양식주와 함께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살겠 네

못갖춘 마디였던 것이 구원에서는 갖춘마디가 되며 강박으로 시작합니다.

후렴

여기 후렴의 '같이 살겠네'라는 가사에선 웅대한 장경을 갖고 찬송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을 생각하면서 찬송해 봅시다.)

같이 살겠네 나 같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살겠 네

같이 살겠네 나 같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살겠 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221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계 22:1)

전에는 이 찬송의 작시 작곡자가 미상이었으나, 현재는 아이나 돌리 옥돈(Ina Duley Ogdon, 1872~1964; 미국의 여류 찬송작가)이 작시하고 피터 필립 빌혼(Peter Philip Bilhorn, 1865~1936; 미국의 복음 전도 가수, 찬송작가)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애굽에서 수 백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밤을 지낸 후 출애굽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종살이하던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날마다 만나로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택함받은 민족이라 자처하며 자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아래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차별 없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여정은 우리 주님께서 불과 구름기둥 되시어 이끌어 주실 것이며,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주님의 생명 시냇가에서 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보편적인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회중들에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주제들, 예를 들면 헤리 포터의 소설책에 나오는 ‘할로윈’과 같은 것들을 전하고 교육합니다(할로윈이란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대축제일 전야(前夜)를 의미함).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을 머릿기사로 싣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대중적이거나 흥미위주, 또는 삶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잃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들”은 실제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우시고, 우리들도 한 때 잃어버린 자들이었음과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머물면서(본론)** **1절** ~ **18절**까지

을 공부하겠습니다.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에베소서 2:11~18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① 11절~12절 - '그 때에'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② 13절 - '이제는'

13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13절을

③ 14절~15절 - '화평'

14절부터 15절까지를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14절부터 15절까지를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④ 16절 - '화목'

16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16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⑤ 17절~18절 - '평안'

2. 다음주일 설교(‘잃어버린 자’)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1. 소망이 없는 자(12절) 오(13절) 보(14절) 참(15절) 원(16절) 용(17절) 용(18절) 용(19절) 오(20절) 보(21절)

① 잃어버린 자들은 ‘소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곳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시한 소망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월 1일 - 10월 1일

② 잃어버린 자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월 1일 - 10월 1일

③ 잃어버린 자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12절).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될까요?

10월 1일 - 10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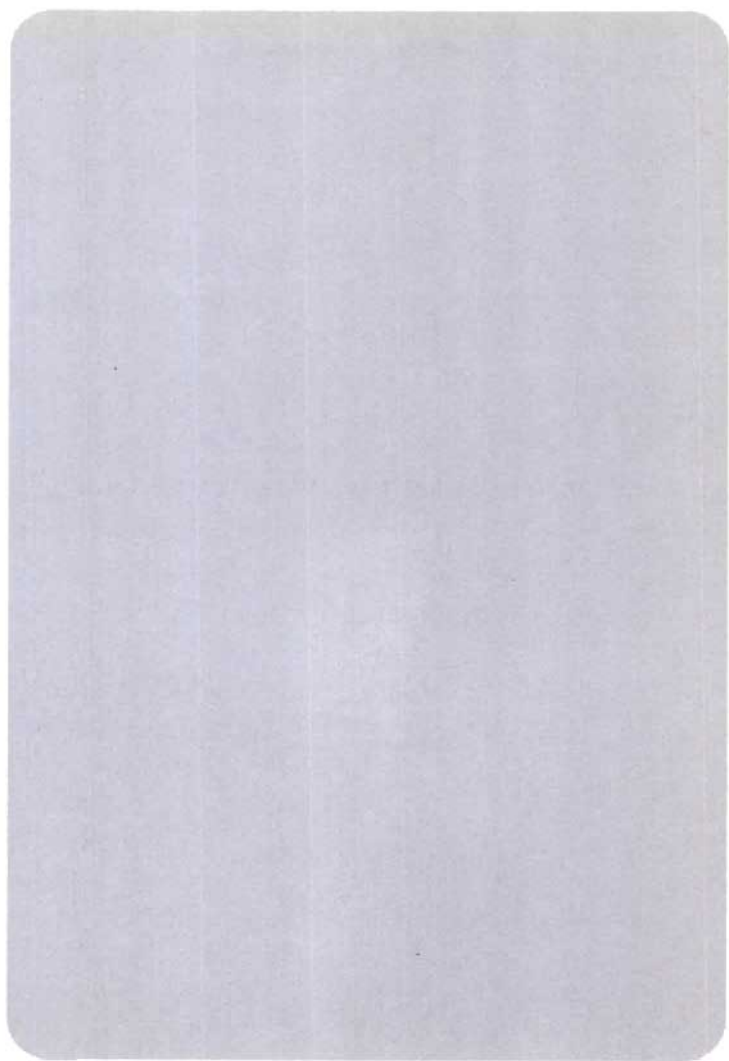
④ 잃어버린 자들은 ‘영원한 생명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소유한 자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을까요?

10월 1일 - 10월 1일

-
- ⑤ 만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요, 영생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가면서(결론)

1. 우리도 과거에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11~12에 묘사된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 말해보십시오(예를 들어서, 과거에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2.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은 그의 백성이 된 우리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즉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4 과

세레 요한의 마지막 증언

찬송 / 91장

읽을 말씀 / 요한복음 3: 22~30

외울 말씀 / 요한복음 3: 30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세레 요한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AD 27년경에 자신의 예언자적 소명을 받았던(눅 3:2) 장소인 유다 광야에서 성년기를 보냈습니다(눅 1:80).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주된 음식으로 삼았습니다(막 1:6).

세레 요한은 선지자로서 로마의 세 번째 황제 디베료(디베리우스) 통치 제15년에 요단강 너머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며(눅 3:1-3),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눅 3:4-14). 그는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으며(막 1:1~11),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 했습니다(요 1:24-42). 나중에 헤롯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헤로디아의 결혼을 불법한 것이라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헤롯과 헤로디아의 적개심을 건드려 베뢰아의 마이카루스 요새에 투옥되었고 거기에서 몇 달 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막 6:14-29).

세례 요한은 평생을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살펴보기

1.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제자들의 질문(22~26절)

② 세례 요한의 대답(27~30절)

오 2. 세례요한의 대답을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로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28절; 요1:29~36; 마3:13~15)

보통말 문법

3.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요1:29; 마
16:16; 고전15:3~4)

(15:3-4) 너희가 믿고 있는 바

4. 본문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의 대중적 인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보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드러냈을까요?(요3:28~29; 막8:34~38; 고전10:31; 고전15:31; 갈6:14)

5.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부분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세부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도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마 16:24),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갈5:16, 22~2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2년 4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안창덕(1-6일), 이성욱(7-12일), 박인기(13-18일) 목사
고광환(19-24일), 김용덕(25-30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윤희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